



제목	The Archaeology of Elam: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an Ancient Iranian State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5. 11. 3.
저자	D. T. Potts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488
ISBN 또는 ISSN	978-1107476639

**내용 요약**

엘람은 기원전 3천년부터 이란 남서부 지역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출현 이후 중요한 국가였다. 메소포타미아, 아나톨리아, 레반트 또는 이집트의 이웃 국가들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문화적 활력의 영역이었다. 메소포타미아 동쪽에 접하는 남서 이란 지방에 위치하였고, 주요 유적은 수사, 초가잔빌(Chogha Zanbil)이 있는데 수사로부터는 선사시대의 채문토기와 그림문자를 기록한 점토판이 발견되었다. 고대 엘람시대(B.C. 2000년대 전반)에는 메소포타미아 예술의 영향을 받아 상아제(象牙製) 부인상과 봉납용(奉納用) 도기 등이 제작되었다. 중(中) 엘람 시대는 가장 번영하였던 시대로 독자적인 예술이 일어나 수사 출토의 청동제 나피르 이수(Napir-Asu) 왕비상, 초가잔빌 출토의 유리제 인장 등이 유명하다. 신(新) 엘람 시대의 예술은 메디아와 아케메네스 조의 예술에 흡수되어 버렸으나 루리스탄 청동기문화와 하산루 문화는 신엘람 문화와 무관하지는 않다. 특히 아케메네스 왕조 시대의 설형문자 비문에는 엘람어가 남아있다.

이 책은 역사적으로 서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인 엘람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를 고고학적 자료와 고대 문자 자료를 통해 조사하고 가장 최근의 고고학 및 역사적인 연구자료를 토대로 그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1999 년 이후 이란에 대한 막대한 양의 현장 조사 및 연구를 반영한 800 개 이상의 추가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